

투데이



암 투병 환우들에 '희망의 빛' 노래

'포크음악의 대부' 이장순, 대장암 4기 맞서며 '행복음악회'

광주 포크음악의 대부로 불리는 이장순(65)은 여전히 건재했다. 살이 좀 빠지고, 혈색이 좋지 않았지만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두 시간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다. 대장암 판정을 받고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던 그가 "나 살아있소"라고 선언이라도 하듯 특별한 무대를 꾸렸다.

22일 광주관전초산업지원센터 영상관(옛 KBS 공개홀)에서는 '이장순의 행복음악회-소외된 이웃과, 암과 동행하는 환우들을 위한 작은 무대'가 열렸다. 기타 연주와 정겨운 노래, 감미로운 휘파람 소리가 함께한 그의 열정적인 공연에 참석한 400여 명의 관객들은 추억에 젖어, 때론 박수로 화답하며 깊어가는 가을밤을 즐겼다.

암을 '고칠병'이 아니라 희을 하거나 더 그어 '고칠병'이라고 말하는 그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망과 격려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인 만큼 레퍼토리 하나까지 정성 들여 짜다.

심어송라이터 백창우가 1979년 가을 이장순에게 주었다는 '잊혀진 어린'부터 1960년대 스탠더드 가요를 포크로 재해석해 들려주는 가

면, 아날로그 세대가 좋아하는 올드 팝 뮤직도 선사했다.

감미로운 노래와 함께 간간이 들려주는, 막역한 사이였던 조영남과 송창식에 얽힌 이야기며 한국가요사의 비화 등은 듣는 즐거움을 더했다.

방송가에서 방송작가와 MC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장순은 70~80년대 활동한 1세대 통기타 가수다. 1972년 총장로에서 통기타 가수와 DJ활동을 시작한 이래 라디오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을 통해 포크음악의 불모지였던 광주에 통기타 음악을 뿌리내린 주역이다.

이후 1984년, '빈수레 인생'과 '서초동 받거리' 앨범을 내고 그 해에 서울로 터전을 옮겨 가요전문기자이자 작사·작곡가로, '열린음악회'와 '가요무대'의 방송작가로 바쁘게 살았다.

지난 2002년 20여 년의 서울 생활을 접고, 광주로 내려온 그는 라이브카페를 열어 팬들을 만나고, 몇 차례 콘서트도 갖는 등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병마가 찾아왔다. 지난해 8월 15일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청천벽력'같은 선고에 죽을 맛이었지만 "그래도 희

망은 있다"고 생각하고 병마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한다. 맞닥뜨린 현실, 아니 새로 얻은 생명을 위해 더욱 긍정적으로 살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부병 중에도 통기타를 놓지 않고, 카페 영업도 계속했다.

올 들어 벌써 네 번째 '이장순 사랑'이라는 영동한 소식이 퍼지는 바람에 꽤 마음고생을 했다는 그는 "이번 무대를 통해 결코 쓰러지지 않는 건재한 모습을 안과 동행하는 환우들과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2년 계획으로 한국가요사를 큰 줄기로 하는 '디큐 뮤지컬'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것이 내가 열심히 살아야하고,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광소 팬이었다는 정재영(49·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암소식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건재한 모습을 보니 다행이다. 쾌유해서 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문화재단 문화바우처 후원으로 열린 이번 공연은 퍼커션 연주자 김홍규씨와 포크 트리오 '소리섬' 사람들이 함께해 뜻을 모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진-나평기자 mjna@kwangju.co.kr

명품 기업도시를 꿈꾼다

J프로젝트 활성화 방안 포럼...26일 영암 현대호텔

전남 서남권에 명품 기업도시를 꿈꾸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뜨거운 토론이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광주일보보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암 현대호텔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영암·해남지역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하고 참신한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전남도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지역 최대의 현안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서남권 지역민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업도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

안'을 주제로 열리는 1부에선 김홍규 연세대 교수의 '기업도시 담면과제와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과 김천중 용인대 교수의 '기업도시 수변공간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고석규 목포대 총장이 토론을 이끌어 가는 1부는 박대원 광운대 교수·강신겸 전남대 교수·이종화 목포대 교수·정재현 광주일보 논설실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린 토론을 펼친다.

'기업도시 투자유치 전략 및 마케팅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2부는 이태호 한국재건연구원 이사간투자 추진을 위한 전략)와 유의동 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한 마케팅 방안)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서승원 선임기자 swseo@

전남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 상향 건의

전남도가 올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의 하나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상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지난 21일 열린 전국 16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비 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농가 실질 소득 향상을 위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농민단체에서도 이같은 점을 들어

▲공공비축미 매입가 6만원(40kg) 보장 ▲2009년산 비축미 율해 팔까지 시중 유통 중단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80만t)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이의 비축미의 협상 허위 표시 등 부정유통 근절을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도·단속 강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김정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영석 원정대 실종 일주일... 암벽밀 균열 집중 수색

국내 최고 산악인들 합류

히말라야 안나푸르나(8,091m)에서 실종된 박영석(48) 원정대를 찾기 위해 나흘째 수색작업이 전개됐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한산악연맹은 24일 국내 최고의 고산등반가들과 전문 산악 구조요원들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대한산악연맹은 23일 박 대장과 신동민(37)·강기석(33) 대원이 안나푸르나 남벽 출발점인 해발고도 5,800m 근처에 있는 깊이 30~40m 정도의 균열에 빠진 것으로 보고 그 내부에 대한 수색을 시작했다. 수색에는 한국인 산악 전문가 3명과 세르프 7명이 투입됐다. 또 카트만두 현지 사고 대책반은 이날 오전 헬기 2대를 동원



해 베이캠프와 실종 추정 지점을 둘러봤다.

구조대는 전남 수색결과 박 대장 일행이 안나푸르나 남벽과 빙하가 맞닿은 지점에 형성된 '베르크슈루트(Bergschrund)'에 갇힌 것으로 판단했다. 박 대장은 지난 18일 오후 6시 캠프와 마지막 위성전화에서 남

벽을 거의 다 내려왔지만 눈사태 때문에 우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벽 밑의 균열이 유력한 실종 지점으로 추정됐다.

대한산악연맹은 수색작업을 위해 지난 5월 안나푸르나 등정으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한 김재수(50) 연맹 이사와 지난달 초오유 등정으로 13좌 정상을 밟은 김창호(42) 대학산악연맹 이사를 내달 현지에 파견키로 했다. 또 전북과 제주, 서울지역에서 전문 산악구조요원으로 활동해온 진재창(46)·강성규(45)·구은수(41) 등 3명과 고성능 급속탐지기 등을 함께 보내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24일 오전 8시40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경영개선 방안 모색 워크숍

강운태 시장 특별강연

광주도시공사는 흥기남 시장의 취임을 계기로 공사의 근본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모든 분야의 실패를 재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분야별로 최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14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광주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임직원 220여명이 참석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1일 워크숍에 참석, 특별강연을 통해 광주발전을 위한 도시공사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공사 선진화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홍경기기자 redplane@

이대로는 안된다! 경영진진화 우리말로 이루어지



강운태 광주시장이 21일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광주도시공사 임직원 워크숍에 참석,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뉴스 브리핑

광주첨단산단에 공립 보육시설

지식경제부는 23일 광주 첨단과 시화, 반월, 남동 산업단지에서 보육시설 5곳을 짓기로 하고 올해 안에 모두 착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화에는 공립 2곳, 반월에는 직장 1곳, 남동과 광주 첨단에는 각각 공립 시설 1곳이 들어선다.

'대학생 전용' 대출상품 나온다

금리가 연 10%대인 대학생 전용 대출상품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출시된다.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상품의 금리는 연 20%대로 인하되고, 대출한도는 5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전남소방본부 항공구조대 이송환자 1천명 돌파

전남도 소방본부는 항공구조대대가 발족 12년만에 이송환자 1000명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항공구조대대가 관할하는 서·남해안은 유인도서 280여개가 산재해 있는 지형적 특성상 소방헬기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경매투자

- 공동 투자 및 함께 공부 하실분
- 40% 미만 특수물건만 전문투자
- 주 1회 3개월 투자분석 및 개인지도
- 연 30% 수익률 법적보장!

|주|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비(비밀)정원관리 철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연 6%정도 (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선순위 대출시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은행금율) / 후순위 - 연 1.2%~3%

국민금융 (대부 제 042호)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부실채권(못 받은 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못 받은 돈

- 선수금 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 금액의 30% 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 가능·연령 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김정수)

전남·북 출장파티 전문업체

- 출장뷔페
- 도시락
- 식판급식
- 성당
- 교회결혼식뷔페
- 야외결혼식뷔페
- 칠순/팔순잔치
- 체육대회
- 야유회
- 중친회
- 기업체 각종행사

예의 파티외식산업
문의 본사 ☎ (062)226-0086 | H.P 010-4601-3222

www.party-food.co.kr

50년 전통 · 대를 잇는 한의원

잇몸병 한약 2첩

붓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소풍 맞은편
한의학 박사 박상준

전화 227-7575
이이치 ~ 치료치료

대한 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10725-중-9092호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KBSI세-80%+a (60%)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보증금의-80% 금리: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용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부 제 042호)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